

# 삼정기계

## 스크린 패드인쇄기의 '작은 거인'

### 회사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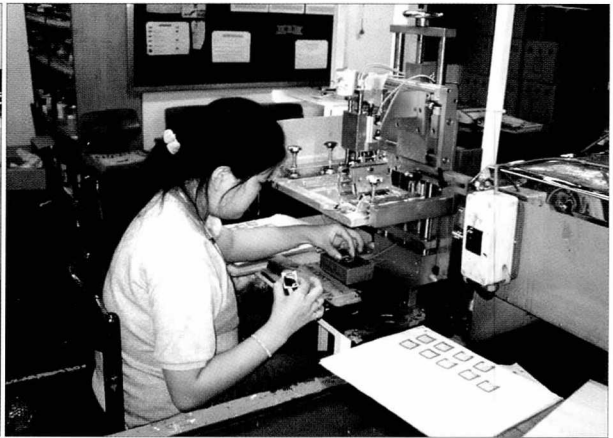
- 1996. 6 삼정기계 설립
- 1999. 8 밀폐식 잉크컵 특허 출원
- 1999. 9 패드인쇄기 디자인 개발
- 2000. 2 그라비아 인쇄기 개발
- 2000. 7 롤러 패드인쇄기 개발
- 2000. 10 기계식 소형 패드인쇄기 개발
- 2001. 5 탁상용 실크·패드인쇄기 개발 및 보급
- 2001. 9 볼스쿠루식 패드인쇄기 개발
- 2001. 11 패드인쇄기 의장특허 출원
- 2002. 6 밀폐형 패드인쇄기 SIDEWAY-1200 개발보급
- 2003. 1 화장품 샘플용기 패드인쇄 자동라인 개발보급
- 2003. 3 압력센서에 의한 위치제어 시스템 개발
- 2003. 7 밀폐형 패드인쇄기 MINI 시리즈 개발보급
- 2003. 10 패드인쇄기 및 실크인쇄기 공장으로 확장분리
- 2004. 6 탁상용 자동 실크스크린 인쇄기 특허출원
- 2004. 8 탁상용 실크 스크린인쇄기 실용신안 등록
- 2004. 9 테이블 상하식 탁상용 실크인쇄기 평/곡면 겸용기 개발보급
- 2005. 1 탁상용 실크스크린 인쇄기 의장 등록
- 2005. 10 전기·기어식 탁상용 소형 패드인쇄기 개발
- 2005. 11 탁상용 1도 자동 실크인쇄 라인 개발보급

흔히 내실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빗대어 말할 때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한다. 겉으로는 보잘 것 없어 보여도 내면이 짝 찬 실속 있는 경우를 두고 흔히 쓰는 속담이다. 탁상용 소형 스크린·패드인쇄기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삼정기계는 작지만 실속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작은 거인’ 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 적극적인 틈새시장 개척에 성공

실크스크린인쇄는 망사에 막을 입히고 막이 입혀지지 않은 부분으로 흘러나오는 잉크를 이용해 인쇄하는 방법으로 주로 평면이나 원형의 곡면에 사용된다. 패드인쇄는 실크스크린인쇄의 한 분야로 평평한 철판을 얇게 파낸 후 잉크를 바르고 칼날 등으로 긁어낸 후 고무(실리콘 패드)로 찍어내 다시 제품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인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곡면이 심한 엠보싱에도 인쇄가 가능하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유리컵이나 도자기 위에 문양이나 글자를 새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국내 스크린인쇄 분야가 오프셋 인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뚜렷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 이미 인쇄기의 국산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주로 값 싼 대만, 홍콩제가 시장을 휩



탁상용자동실크인쇄기를 이용한 소그룹 인쇄작업 현상 사례들

쓸었지만 지금은 가격 경쟁력과 인쇄 품질력을 두루 갖춘 국산 제품들이 신뢰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은 용도에 따른 다양한 제품군 형성이 미비하다는 것. 대형 인쇄기 위주로만 공급되는 시장 환경속에서 사용자는 기종 선택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른 경쟁사들이 뛰어들지 않은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성공한 회사가 삼정기계다.

### 크기는 작지만 대형 인쇄기 성능 그대로

서울시 구로구 구로공구상가 부근에 위치한 삼정기계(대표 김창용, [www.samjungpad.co.kr](http://www.samjungpad.co.kr))는 지난 1996년에 설립된 이래 10여 년 동안 소형 실크스크린·패드인쇄기를 전문적으로 제작, 보급해 온 회사다. 3가지 정신을 의미하는 '삼정(三精)'이라는 상호는 김창용 사장이 직접 지은 것이라고. 바로 신기술 개발만이 생존의 열쇠라는 '기술제일 정신', 고객의 작은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한다는 '고객제일 정신', 신뢰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최고급 성능의 인쇄기계를 만들겠다는 '품질제일 정신'을 담고 있다.

다른 제조회사들이 만들기를 꺼려하는 소형(정식 제품 명칭은 '탁상용')인쇄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김 사장은 "시장 형성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능성을 느꼈다"고 말한다.

업체들이 소형 스크린인쇄기 제작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윤이 적기 때문. 이는 자연스레 시장을 대형 스크린인쇄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이 됐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비용과 공간의 비효율성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사과 몇 박스 옮기는데 덤프트럭을 쓸 필요가 없듯이 소규모 사업장만을 위한 차별화된 제품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소형 실크스크린·패드인쇄기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조작 간편하고 소음 거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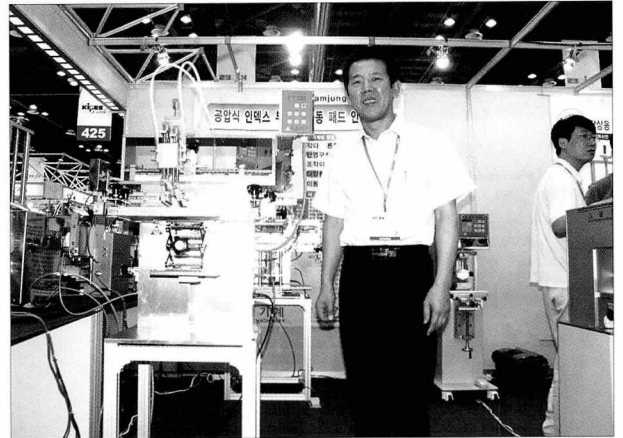
삼정기계가 생산하고 있는 탁상용 소형 실크스크린·패드 인쇄기의 장점은 말 그대로 크기가 작아 이동 및 설치가 쉽다는 것이다. 또한 류랄두민 소재를 채택, 가벼우면서도 제품의 내구성이 한층 강화됐다. 공압실린더는 긴 수명을 보장하는 독일 페스토(FESTO)사의 것을 사용하고 있어 제품 신뢰도를 더해 준다. 대용량 소음기가 부착돼 소음은 50dB이하로 현격히 감소시켰으며, 압소바를 2중으로 부착해 진동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벨브와 근접센서는 시중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사시 즉시 대체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부품수를 줄여 기계의 분해·조립 또한 용이하다. 여기에 황금색으로 표면처리된 외관은 제품의 고급스런 멋을 그대로 살려준다.

〈제품사양〉

명칭	탁상용 소형 자동 실크스크린 인쇄기계
모델명	소형 SILKIY-150, 200, 250 중형 SILKIY-300, 350, 400 대형 SILKIY-450, 500, 550, 600
최대실크판크기	가로 250× 세로 380mm
상하행정거리	150mm
최대 속도	1800회/1시간당(6BAR기준)
최대 좌우행정거리	150mm
스퀴즈 조절범위	20mm
사용 스퀴즈	두께 6t, 9t 겸용 × 폭50mm
외형	450× 450× 700mm
총중량	55kg이하
기본기능	자동/반자동/수동/발판스위치/외부제어신호/계수기능
전원	AC 85V-264V free volt/ DC24V 30W
특징	실크판의 X,Y,Z,R 조정기능 작업대의 X,Y,Z,R 조정기능 외부제어 신호를 통한 자동라인 부착용이 15종류의 사용자 설정기능 5종류의 지연시간 설정기능 조작이 간편한 터치패널 채용

〈제품사양〉

명칭	탁상용 소형 자동 패드 인쇄기계
모델명	1색도소형 MYPAD-70C 2색도소형 MYPAD-70C/2 2색도중형 MYPAD-90C
부식동판 크기	75× 150× 10t-0.5t의 얇은 판도 사용 가능
최대 인쇄 속도	3600회/1시간당(6BAR기준)
상하행정거리	50mm
전후행정거리	750mm
사용잉크컵크기	φ 60, φ 70, φ 90mm
잉크컵재질	초경 및 세라믹
외형	250× 500× 450mm
총중량	45kg이하
기본기능	자동/반자동/수동/발판스위치/외부제어신호/계수기능
부가기능(옵션)	흡착장치/배출장치/조명장치/드라이장치
전원	AC 85V-264V free volt/DC24V 30W
특징	패드문치의 X,Y,Z,R 조정기능 작업대의 X,Y,Z,R 조정기능 자동/반자동/손동기능 외부제어신호 내장 잉크컵방식으로 청소작업 용이 MYCOM방식으로 조작이 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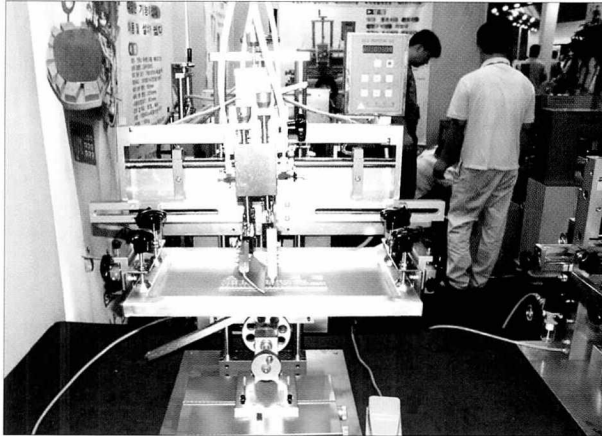
KIPES전시장에서 삼정기계 김창용 대표

### 제15회 국제인쇄산업전서 관심 집중

삼정기계가 생산하고 있는 탁상용 소형 자동 실크스크린·패드인쇄기의 가격은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400만원대로 일반제품에 비해 40% 가량 저렴하다. 김 사장은 “한대당 판매 마진은 그리 큰 편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삼정기계는 이를 위해 박리다매의 판매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덕분에 다행히 시장의 반응도 좋아 출시 후 지금까지 700대 이상이 팔려나갔다.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듣고 구매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최근엔 온라인 마케팅으로도 눈을 돌려 주요 포털사이트와 계약, ‘삼정기계’ 및 ‘패드인쇄’와 같은 관련 검색어를 치면 상위에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삼정기계는 앞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제품 홍보를 위해 관련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국제인쇄산업전시회에는 빠짐 없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0일 막을 내린 제15회 KIPES 행사에서도 실크스크린인쇄기 5종과 패드인쇄기 1종을 선보여 관람객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삼정이 만들면 뭔가가 다르다”는 사용자의 인식속에 삼정기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이 김창용 사장의 굳은 신념이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탁상용 소형 실크스크린 인쇄기



KIPES2006에 마련됐던 삼성기계 부스

김창용 삼성기계 대표

## “저가형 소형 실크스크린 패드인쇄기 수요 더욱 늘어날 것”

### 회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삼성기계는 실크스크린 인쇄기술의 한 분야인 패드인쇄기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1980년대부터 기술 개발 및 국산 패드인쇄기계의 보급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다양한 종류의 국산 패드인쇄기를 산업현장에 공급했습니다. 이는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초창기에 비하면 실로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기계는 앞으로도 소형 실크스크린·패드인쇄기의 보급과 개발을 사명으로 삼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소형 인쇄기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업체마다 작업자를 충원하는데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쇄기의 가격도 고가여서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에서는 구매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판매 이윤이 높지 않아 매리트를 느끼지 못하던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리다매의 전략으로 보급형 저가 인쇄기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소형 탁상용 실크스크린·패드 인쇄기의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스크린인쇄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작업 인력이 점차 고령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현장에 가보면 평균 연령이 40대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인쇄업은 기술습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힘들고 언어 소통에 대한 장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앞으로는 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생산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 저가형, 자동화 인쇄기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삼성기계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소규모 작업장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소형 인쇄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